

김선경 | 연구원 (제 6224)

- 주요 뉴스: 미국 5월 고용지표 호조,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전망을 강화 등
 - 바이든 대통령, 미국 고용시장은 세계 2차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
 - 일본은행 총재, 물가목표 달성 위해 임금상승 필요. 정부는 일본은행과의 공동성명 유지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경기 우려로 인력 10% 감축 및 신규고용 중지 명령
- 국제금융시장: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공격적 통화긴축 가능성에 주목
 주가 하락[-1.6%],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 금리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 전망 강화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예상보다 견조한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영향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통화긴축 전망 강화를 반영해 상승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전망 지속으로 4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44.25원, +8.9원) 0.7% 상승, 한국 CDS 상승

6/3일					6/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08.5	4,176.8	-1.63%	국채 금리 10y	미국	2.93%	2.91%	3bp	CDS 5y	한국	46bp	45bp	1bp
	유럽	440.09	441.23	-0.26%		독일	1.27%	1.24%	4bp		중국	71bp	70bp	1bp
	중국	휴장	3,195.5	-										
	일본	27,762	27,414	1.27%										
	한국	2,670.7	2,659.0	0.44%										
환율	달러지수	102.14	101.82	0.31%	위험 지표	EMBI+	377	378	-1bp	원자재	구리	447.2	455.3	-1.77%
	유로화	1.0719	1.0747	-0.26%		VIX	24.79	24.72	0.28%		WTI유	118.87	116.87	1.71%
	엔화	130.88	129.84	-0.80%										
	위안화	휴장	6.6603	-										
	원화	1,242.7	1,252.1	0.7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5월 고용지표 호조,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전망을 강화

- 미국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39만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31.8만명을 크게 상회. 5월 실업률은 전망치(3.5%)를 소폭 상회했으나 3개월 연속 3.6%를 유지.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도 전월비 0.3%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지속
- 연준의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공격적 통화긴축 전망이 강화. 지표 발표 직후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2.99%까지 상승했으며, 테슬라 인원 감축 우려로 발표 전부터 하락하던 미 주가지수 선물은 낙폭을 확대
- 고용지표는 연준에게 실업률, 경제활동 참여율, 임금상승률 등 고용시장 전반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안도감과 함께, 미국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힘들다는 우려를 복합적으로 야기(BMO Capital Markets)
- 한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9월 금리인상 중단을 지지하지 않으며, 6월, 7월에 이어 9월에도 50bp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발언. 아직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나지 않았으며 9월 인상폭은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바이든 대통령, 미국 고용시장은 세계 2차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

-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인상 단행과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5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 대해 세계 2차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 금일 지표 호조에도 다수 미국인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발언
- 높은 인플레이션, 특히 휘발유와 식품 가격이 큰 문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동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 확신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발언. 전일 OPEC+의 증산 합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개라 환영하면서도 증산 규모가 충분한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부연

■ EU, 러시아산 원유 수입 부분 금지를 포함하는 6차 대러 제재 채택

- EU 이사회는 러시아산 원유와 일부 석유제품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 다만 해상 수송 원유 수입만을 대상으로 하며 송유관을 통한 수입은 금수조치를 면제. 또한 푸틴 대통령의 연인인 '카바예나'도 제재 명단에 추가

■ 일본은행 총재, 물가목표 달성 위해 임금상승 필요. 정부는 일본은행과의 공동성명 유지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언. 일본은행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2% 물가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물기뿐만 아니라 임금도 상승해야 한다고 부연
-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행이 자체적 방법으로 안정적 물가상승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정부는 근본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경제 선순환 사이클을 목표로 '13년 발표한 일본은행과의 2% 물가상승 목표 관련 공동성명을 유지한다고 강조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경기 우려로 인력 10% 감축 및 신규고용 중지 명령

- 일론 머스크 CEO가 임원들에게 경제가 매우 악화될 위험이 있어 직원 10% 감축 및 전세계 신규고용 중지를 지시하는 내용의 테슬라 내부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인력 10% 감축 시 약 1만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

■ 뉴욕 의회, 탄소저감을 위해 비트코인 채굴 금지법 통과

- 뉴욕 주의회 상원은 4월 하원에 이어 작업증명 방식의 비트코인 등 일부 가상화폐 채굴을 2년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 뉴욕 주지사의 법안 서명 시 곧장 발효되며, 작업증명 방식의 가상화폐 채굴업체는 100%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전력을 이용해야만 채굴 허가를 갱신 가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6/3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실업률: 3.6%, 4월(3.6%), 예상치(3.5%)
- 미국 5월 비농업고용 증가(전월비): 39.0만명, 4월(43.6만명), 예상치(31.8만명)
- 미국 5월 ISM 서비스 경기지수: 55.9, 4월(57.1), 예상치(56.5)
- 미국 5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확정치): 53.4, 4월(55.6), 예비치(53.5)
- 유로존 4월 소매매출(전월비): -1.3%, 3월(0.3%), 예상치(-0.1%)
- 유로존 5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확정치): 56.1, 4월(57.7), 예비치(56.3)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29, E-mail skkim@kcif.or.kr